

# 우리의 마음은 많은

4월 9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입암산)



## 목 차

02 캠페인

04 성명서

06 에코리딩 독후감

08 창립25주년

09 활동보고

11 회계보고

13 환경영화 / 서적

14 환경상식

15 운영회원 모집

16 신입회원 안내 / 광고

# 최악의 환경참사, 가슴기살균제참사 살인기업 옥시(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불매운동

- 영국기업 레킷(한국 옥시)와 한국기업 애경은 가슴기살균제 참사의 대표적인 가해기업들입니다.
- 옥시는 [옥시썩썩 뉴가슴기당번]을 415만개나 판매한 최대 판매기업입니다. 신고 및 구제 인정된 피해자의 83%인 3,580명이 이 제품 사용 피해자입니다. 여태껏 겨우 405명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3,175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 애경은 [애경 가슴기메이트]를 164만개나 팔아 두 번째로 많이 판매했습니다. 신고 및 구제 인정된 피해자의 27%인 1,540명. 이 제품 사용 피해자는 지금까지 겨우 11명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1,529명에 대해서는 무책입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3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는 7,685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1,751명입니다. 전국적으로 894만 명이 제품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중 95만 명이 건강피해를 경험했으며, 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 2002년 5월 3일 새벽 가슴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안은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 가슴기살균제 옥시썩썩 가슴기당번을 사용했습니다. 두번의 폐식 수술 이후 신장과 호흡기능 이상, 허반신 마비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살아생전 “옥시(옥시레킷벤키저)는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한다”며 수없이 말했습니다.
- 어떤 말로도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대참사를 일으켜놓고도 가해기업들은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하다 죽고 다친 피해자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제품독성을 조작하며 전문가와 공무원은 매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 가슴기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피해지원을 위한 조정안이 마련되었으나(9개의 기업 중 7개 기업만 동의) 전체 기업부담의 60%가 넘는 책임을 져야할 옥시와 애경은 조정안 내용에 ‘부동의’했습니다. 조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안전한 시장을 만들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힘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해놓고 사회적참사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옥시(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 전국 불매운동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 행동으로 함께해주세요

1. 가습기살균제 영화 [공기살인] 관람, 기억해주세요.
2. 집, 학교, 일터 등 사용 중인 애경과 옥시제품을 찾고, 더는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 사진 인증으로 함께해주세요.
3. 옥시와 애경 제품 불매운동 동참해주세요.
4. 개인, 단체 SNS에 #옥시불매운동 #애경불매운동 해시태그 달기  
#애경불매운동 #옥시불매운동 #공기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애경 그룹의 제주항공 타지 말자!  
애경백화점 AK프라자 가지 말자!



애경 불매 상품  
자세히 보기



옥시 불매 상품  
자세히 보기

“

# 이어지는 목포시의 삼학도 호텔사업 대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4월27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국민운동본부는 삼학도호텔 계획 철회를 위해 항만부두이전과 이후 활용 등에 대한 입장을 듣고 우리 국민운동본부의 뜻을 전달하고자 목포해양수산청장 면담을 요청 하였지만 주무기관인 목포해양수산청장은 우리의 만남을 한사코 거절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해양수산부 장관면담, 농수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등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현시장과 전 시장의 정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 우리 국본의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삼학부두의 기능은 최소 2025년까지 유효하며 이후 폐지, 매각 수순을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4월 7일 삼학도호텔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을 하면서 발표한 2026년 호텔 완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4월7일 발표 내용에 들어있는 10만㎡의 공유수면을 이용한 시설계획 또한 해양수산부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조차 해놓지 않은 상태로 시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이 정도 대단위 공유수면 점·사용을 위해서는 깊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로 그 절차와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데도 2026년 완공이라니 어안이 병병할 수밖에 없다. 불법과 편법을 총동원 하거나 마법사가 아니면 이루지 못할 것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발표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우롱하고 호도하는 기만행위라고 단정한다.



협약 체결한지도 한 달이 되어 가는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사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8기를 이끌 집행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목포시의 오만한 자신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2022. 05. 04.

### 삼학도지킴이국민운동본부





##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글 | 우성주 에코리딩 동호회 회원

지금껏 지나왔던 세월의 생채기들은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으며, 자연은 인류의 악탈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밀동만 남겨두고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봄이 찾아와도 나무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고 새들도, 많은 생물도 그 자리를 빼앗겨 마침내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러한 경험이 내가 환경을 다루는 책에 관심 두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제인 구달의 『희망의 밥상』이 출간된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사람들은 밀레니엄 버그라든지 세기말이라든지 하는 기술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존층이 뚫리고 있다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경고했지만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지금껏 지나왔던 세월의 생채기들은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으며, 자연은 인류의 악탈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밀동만 남겨두고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는 봄이 찾아와도 나무는 더 이상 깨어나지 않고 새들도, 많은 생물도 그 자리를 빼앗겨 마침내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러한 경험이 내가 환경을 다루는 책에 관심 두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제인 구달의 『희망의 밥상』이 출간된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사람들은 밀레니엄 버그라든지 세기말이라든지 하는 기술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존층이 뚫리고 있다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경고했지만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아직은 지구가 전 세계적인 오염에 시달리지 않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괴로 치달기 전의 이야기였으며, 세계가 공감하는 공통된 의제도 아니었다. 한 국가, 한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어 당장 행동을 멈추면 충분히 자연이 스스로 힘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 판단하였다. 중국의 미세먼지가, 아마존의 살림 황폐화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직접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우수록 환경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이대로 몇 년 후면 자연은 복원력을 상실하고 임계점에 이르러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려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저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온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환경에 관한 관심이 생겨날 즈음 만난 『희망의 밥상』

최근, 환경 이야기하며 희망을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위기’, ‘위험’, ‘경고’, ‘비극’, ‘이상’, ‘멸종’, ‘변이’ 이런 단어들에 익숙한 요즘이다.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20년 전 제인 구달은 『희망의 밥상』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밥상에서 세상을 바꾸자”

제인 구달은 1. 로컬푸드, 2. 유기농, 3. 공정무역, 4. 채식을 강조했다. 근래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로컬의 개념을 반경 300km 내외로 보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우리 땅에서 나오는 식재료만으로도 밥상을 지킬 수 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완전 유기농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법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방식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토지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종(미생물)의 다양성을 통해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건강한 생산물을 얻을 수 있다.

공정무역의 경우 무조건 싼 가격의 생산품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며 공정한 환경 속에서 생산된 생산품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생산 방식의 농업이 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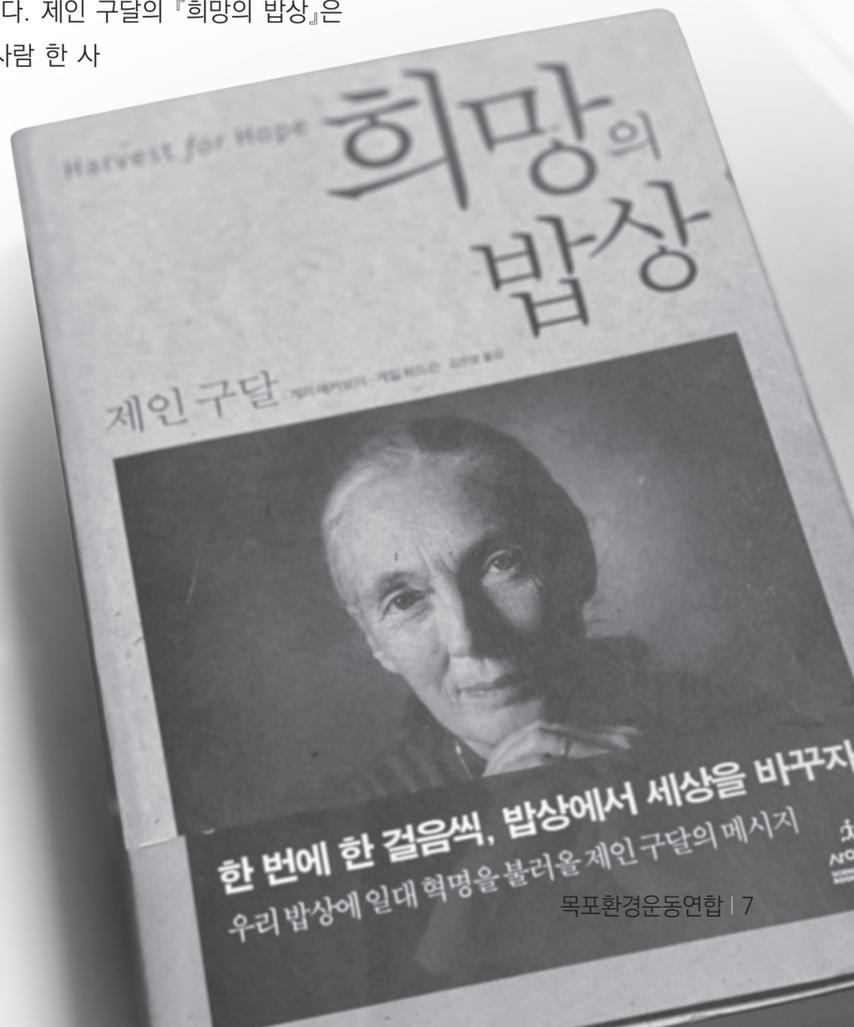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1인당 연간 50kg의 육류 소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부터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연의 훼손을 막을 수 있고, 밀집 사육에 의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 더 이상 육류 생산을 위한 GMO(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곡물을 생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채식은 무자비한 어업에도 영향을 주어 무분별한 수산물 남획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토양, 바다, 산림은 생태가 복원되고 복원된 생태계는 자연을 치유하며, 치유된 자연은 인간의 욕망을 치유하고 욕망의 배설물을 처리할 것이다. 제인 구달의 『희망의 밥상』은 이러한 생태의 연결고리를 잇는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실천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희망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우리가 제인 구달의 이야기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행동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가까운 시간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 의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지구의 생태환경을 살리는 것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올해 창립기념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과의 거리를 좁히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마중물로 만드는 대동의 자리입니다.

## 개요

**1부 일시 및 장소** : 6월 24일 (금) 5시~ 10시 만인살롱, 만인계월컴센터

**세부내용** : • 형식 : 기념식과 후원행사

- 기념식(걸어온 길, 사진영상 제작, 장기·우수회원 시상, 비전 선포 : 희망 메시지)
- 환경영화 다큐, 콘서트 등 음악공연 진행
- 판매물품 : 다과 도시락 판매

홍성담 외 3명 작가 미술품 판매 (스케치, 판화 등) - 전정호 판화작품 10점 판매 예정

- 판화와 스케치 에코백, 파우치, 손수건 제작 판매
- 친환경물품키트

**1부 일시 및 장소** : 6월 25일 (토) 3시~5시 (목포연안미술행동 퍼포먼스), 삼학도 일대

**주제** :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 환경문제

- 홍성담 작가를 위주로 전국 예술인 30여 명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중
-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
- 퍼포먼스 작품은 15~20일 숙성기간 가진 후 전시 예정 - 7.22.(금) ~ 28.(목) (오거리문화센터)

## 2022년 창립25주년 기념 연간계획

- 기념식, 후원행사 진행 (창립기념일)
- 초청 강연회 (협약단체들과 공동진행)
- 10곳 이상 목포환경운동연합과 협약 추진
- 환경교육키트 개발
- 회원, 시민 대상 공모전 개최 (슬로건 공모, 환경사진 등)
- 쓰담걷기 (쓰레기 줍기) 진행 : 삼학도 일대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 02일(수) 2030특별위원회 모집 웹자보 안내(밴드, 홈페이지 게시) / 소식지 편집회의
- 03일(목) 유달산 조각공원 야간조명 관련 수목 생장 조사 / 새활용토론회 영상 유튜브, 홈페이지 업로드 / 생태기행 웹자보 안내
- 04일(금) 용해3단지 재개발 관련 민원인 방문 면담 / 생태기행 두블 등록
- 08일(화) 세계여성의날 안내(밴드)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동향과 이슈 온라인 회의 1차 / 다이어트 모임 / 615집행위
- 10일(목) 소식지 연구성 원고 수정 / 고하도 인근 쓰레기 현황 조사 현장 답사
- 11일(금) 해양활동 내부 간담회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동향과 이슈 온라인 회의 2차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참사 11주기 안내
- 12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과故서한태 상임고문 4주기 추모행사(24명)
- 14일(월) 식목일 맞이 회원 꽃씨 나눔 안내 / 「갯벌을 걷다」 안내 웹자보 작성, 배포
- 15일(화) 유수지 청소 점검 확인 / 목포과학대학 기획처 면담(학교차원 환경을 위한 실천활동 모색) / 청소년·청년 칼럼리스트 모집 / 진도군 조도 단체 설립 관련 문의 면담
- 17일(목) 회원 꽃씨앗 우편 발송 / 국처장단 전남사무국처장단 회의 / 새활용 토론회 온라인 회의
- 18일(금) NGO칼럼 기고문 전달(목포시민신문)
- 21일(월)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성비위자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엄중 처벌 촉구 / 제128호 소식지 우편발송(509통)
- 22일(화) 중앙위원회 온라인 회의 / 압해도 해안가 쓰레기 실태조사
- 23일(수) 명예해양환경감시원 모집 안내
- 24일(목) 용해3단지 재개발 사업 문제 관련 의견서 작성
- 25일(금) 615목포지부 통일일꾼 간담회
- 26일(토)故박종선회원 영면 노제(삼학도)
- 29일(화) 용해3단지 재개발 사업 문제 관련 의견서 목포시 전달
- 30일(수) 전남교육회의 / 뉴스레터 1호 제작과 회원 문자 발송 / 용해3단지 관련 민원인 내방 면담
- 31일(목) 생태기행 웹자보 제작 / 청소년환경기자단 계획안 작성

• 3월 12일(토) 故서한태 상임고문 4주기 추모행사



• 3월 12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24명)



• 3월 21일(월)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성비위자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엄중 처벌 촉구



• 01월 26일(토) 故박종선회원 영면 노제(삼학도)



# 4월

- 01일(금) 해안쓰레기 모니터링(해남 목동리, 진도 하조도)
- 04일(월)故박광웅 선생 사회시민장 참석
- 05일(화) 2030특위(25주년 창립일 기념행사 준비 논의) / KBS라디오 식목일 관련 캠페인 인터뷰 / 비전혁신회의 참석(광주환경운동연합)
- 07일(목) 목포과학대 면담 / 목포교육회의 출범식(YMCA)
- 08일(금) [성명서] 임기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김종식 시장은 불통행정의 끝판왕인가? / 해안쓰레기 관련 고하도 통장 면담
- 09일(토) 시민·회원과 함께하는 생태기행(입암산 33명)
- 11일(월) 4월 21일 지구의날 관련 공문 발송(자원순환과장. 유달동장) / 가슴기 살균제 대응방안 논의 온라인 회의
- 12일(화) 615대표자회의 / 세월호참사 기록전 관람 / 삼학도지킴이국민운동본부 긴급회의 / 전남교육청 미래인재과장 면담(전남환경교육센터 위탁 관련) / 공익단체의무이행서류 제출 / 2030특위(규정 수정, 창립기념행사준비 논의)
- 14일(목) [기자회견]목포 시민을 기만하는 삼학도 호텔사업 즉각 철회하라 / 목포시 조각공원 수목생장조사 / 국립공원 회의
- 15일(금) 대성초 환경교육 / [기자회견]목포시내버스 실효적 관리, 감독 방안 촉구 / 자전거도로로 관련 회의
- 16일(토)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식(목포신항)
- 18일(월) 대성초 환경교육 / 명예해양감시원 신청 / 프리하당준비위원회 회의(사회적기업성장지원센터) / 자전거도로로 관련 회의
- 19일(화) 해수부 항만정책과장 면담 자료 정리 / 목포아이쿱생협과 업무협약 진행, 대반동 지구쓰담 걷기
- 20일(수) 중앙초 환경교육 / 창립25주년 관련 생명평화미술행동과 협의안 작성
- 21일(목) 제243차 집행위원회 / 지구의 날 고하도 대청소 / 생명평화미술행동 흥성담 작가 면담
- 23일(토)故박승희 열사 31주기 추모식 참석
- 24일(일) 세월호 부스 지킴이
- 25일(월) [기자회견] 정책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목포시장선거 촉구
- 26일(화) 옥암초등학교 환경교육 / 가슴기 살균제 관련 홍보물 작성 배포
- 27일(수) 민주당 입당원서 유출 관련 항의서한 전달 / 해수부 항만정책과장 면담 / 가슴기살균제 참사 불매운동 홍보물 작성 배포 / 자전거 도로 관련 홍보물 작성
- 28일(목) 태양광 설치 관련 민원 접수(함평)
- 30일(토) 세월호 추모 현수막, 리본 철거 / 고하도 쓰레기 정리 현장 확인

• 4월 14일(목) [기자회견]목포시민을 기만하는 삼학도 호텔사업 즉각 철회하라



• 4월 19일(화) 목포아이쿱생협과 업무협약 진행 / 대반동 지구쓰담걷기



• 4월 21일(목) 지구의 날 기념 고하도 대청소



• 4월 25일(월) [기자회견] 정책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목포시장선거 촉구



영암일보(주)/(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만인계마을기업/시네마mm/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주)보해양조/대신아이시티(주)/목포대성신협/우진건설/더오래플/  
 코롬방제과점/게스트하우스 달꾸메/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복수/강석원/  
 강선애/강성휘/강영규/강영두/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혜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  
 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곽신영/곽용열/곽재구/구봉선/국순천/권가별/권수한/  
 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민/김경숙/김경애/김경완/김경태/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귀영/김근대/  
 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대현/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명숙/김명종/김명화/김명희/  
 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욱/김보현/김상순/김상훈/김선남/김성륜/김성진/김성진/  
 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미/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  
 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웅기/김원이/김유경/김유현/김윤임/  
 김은경/김은미/김은희/김일용/김장원/김재민/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종수/김주재/김지수/  
 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택/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행연/김현근/김현숙/  
 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효정/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  
 노애란/노천우/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용철/류재정/마홍식/모원종/무관/문보현/문성종/문승현/문원규/문정임/  
 문지영/문호/문호산/민경관/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철/박기훈/박대성/  
 박대현/박동구/박동환/박문옥/박미덕/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상현/박선옥/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  
 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순미/박안섭/박영윤/박영철/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  
 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범/박재신/박재홍/박정록/박종길/박종선/박종수/박종위/박지현/박진/박창수/박창우/  
 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백동진/  
 백성숙/백재봉/변옥숙/변재영/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연선/서영숙/서영옥/서정/서정만/서한배/설단숙/설지연/성보석/  
 성상호/소혜인/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두호/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우/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원/  
 신원호/신현령/안명희/안수경/안정배/양덕수/양수민/양승미/양승희/양영숙/양정호/양주동/양진국/양창숙/양현주/  
 양환/양희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문환/오미선/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오하늘/  
 오현자/오현주/우성주/위준철/유경호/유기성/유영근/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훈/유지원/  
 유혜정/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인/윤종일/이경매/이경석/  
 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금희/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복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  
 이송환/이수/이순용/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희/이영숙/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  
 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석/이정식/이종환/이주연/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  
 이충완/이학승/이현숙/이현승/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혜령/이혜용/이화/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  
 임재형/임지현/임진옥/임창욱/임태섭/임혁/임효철/장관호/장근천/장근현/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유선/  
 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향금/장희웅/전경남/전경란/전남실/전대열/전상보/전성철/전양수/전용원/전준수/  
 전현호/전형숙/정경순/정고운/정동욱/정병이/정상문/정성배/정수민/정순용/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  
 정옥례/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유나/정윤안/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일/정재근/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  
 정현찬/정형권/정홍호/조광운/조상현/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  
 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지이화/진선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선미/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만/최경수/  
 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송주/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양선/최영란/  
 최영숙/최영철/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진철/최철수/  
 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녕/최환석/추연성/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허상진/허진홍/현인숙/홍갑석/홍선기/  
 홍성혁/홍세영/홍정우/홍택용/황선주/황순진/황형수/황혜미/

회비 납부

03~04월

2022년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9,426,000
	단체회비	550,000
소 계		9,976,000
사업수익		570,000
후 원 금		550,000
기타수익		0
이자수익		20,753
예 비 비		5,000,000

## 03월

- [사업수익] • 최근기 소식지 광고비(1년)  
• 최완수(녹색연구회) 소식지 광고비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예 비 비] • 정기예금 일부 출금 500만원
- [이자수익] • 예비비 이자 20,753원

당월수입금	16,116,753
전월이월금	226,576
합 계	16,343,329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322,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196,500
	연대사업	384,440
소 계		902,94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0
소 계		0
인 건 비	급 여	6,039,340
	복리후생비	1,624,240
	상여금	0
	퇴직적립금	1,080,599
소 계		8,744,179
업무추진비	출 장 비	0
	활 동 비	80,000
소 계		80,0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518,000
	통신광열비	707,450
소 계		1,237,45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233,450
	보 험 료	100,000
	원천징수분	143,000
	지급 수수료	465,520
소 계		898,970
당월지출금		11,863,539
통장 잔액		4,479,790
합 계		16,343,329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6,386,000
	단체회비	290,000
소 계		6,676,000
사업수입		320,000
후 원 금		770,000
기타수익		120,000
이자수익		0

## 04월

- [사업수익] • 생태기행 참가비 32만원
- [후 원 금] • 후원회원 15만원  
• 고삼석 12만원  
• 전남환경운동연합 50만원
- [기타수익] • 일자리안정자금 12만원

당월수입금	7,886,000
전월이월금	4,479,790
합 계	12,365,790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322,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0
	행 사 비	169,800
	연대사업	250,000
소 계		741,80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91,000
소 계		91,000
인 건 비	급 여	5,987,790
	복리후생비	1,547,720
	상 여 금	0
	퇴직적립금	541,133
소 계		8,076,643
업무추진비	출 장 비	110,700
	활 동 비	40,000
소 계		150,7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235,000
	도서인쇄비	0
	통신광열비	208,760
소 계		454,460
기 타	환경기금	100,000
	제세공과금	0
	보 험 료	100,000
	원천징수분	71,500
	지급 수수료	512,610
소 계		784,110
당월지출금		10,298,713
통장 잔액		2,067,077
합 계		12,365,790



## 공기살인

드라마 | 108분 | 2022년 | 감독 : 조용선

###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충격적인 실화

‘공기살인’의 배경이 된 가슴기살균제 사건은 폐질환 피해자 백만여 명이 속출한 생활용품 중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세계 최초의 환경 보건 사건으로 기록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다.

살균제를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형태는 가슴기 살균제가 유일하며 이러한 제품이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출시 유통되어 약 천만 통이 판매되면서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만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러다 원인조차 몰랐던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 실태가 밝혀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기업들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고, 국가는 그것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영화 ‘공기살인’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던 의문의 죽음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실체를 따라가면서 17년 만에 마침내 밝혀진 사건의 진실을 알린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과 사회에서 외면 받았던, 여전히 계속되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세상에 알린다.

‘공기살인’은 단순히 사회 고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요소에 관객과 함께 공감하는 따뜻한 휴먼 드라마의 감성을 갖춰 영화적인 재미를 전달한다. 이에 더욱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불러모아 이러한 대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 동네에서 만난 새

이치니치 잇슈 지음 | 가지 | 2022년 02월 01일 출간

“이 책 한 권이면 60종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동네에서 사계절, 산책하듯 새 관찰에 입문하는 법

- : 필명이 '하루 한 종?!' 탐조에 진심인 일본인 저자가 직접 관찰해 그리고 쓴 책
- : 국내 탐조인들의 바이블 《한국의 새》 저자, 국립생물자원관 박진영 박사의 특별 감수
- : 구독자 26만 명, 동영상 누적조회수 3000만 회, 탐조 전문 유튜브 '새덕후' 강력 추천

출퇴근·등하교·산책길에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새들의 생태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라도 생활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귀엽고 야무진 새 60여 종의 먹이 활동, 구애 행동, 집짓기와 육아법, 소리와 몸짓, 그 외 볼수록 신기한 생태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나라와 조류의 분포 및 식생이 비슷한 일본에서 야생동물 조사원으로 일했던 저자가 직접 눈으로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써서 구성했다. 생김새만 세밀히 묘사한 그림이 아니라 행동과 특징, 실제 환경에서 발견된 모습 그대로 원색 일러스트로 그려 실제 현장에서 새를 발견하고 그 행동을 이해하기에 좋다. 평소 동네에서 만나는 새들의 행동과 소리, 자세한 생김새가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탐조 최적기인 겨울은 물론이고 사계절 곁에 두고 보면서 온 가족의 첫 새 관찰 책으로 삼을 만하다.



책과 영화를 보고 독후감이나 감상문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환경 HOT 키워드 '프리사이클링'

최근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로웨이스트나 탈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및 절약 관련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 또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푸루와 함께 새로운 환경 HOT 키워드, '프리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아요.

### 폐기물,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 프리사이클링이란?

프리사이클링은 영단어 'pre-' 와 재활용을 의미하는 'recycling'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사전 재활용'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풀어볼까요?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다양한 물건! 사기 전에는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막상 사고 나니 잘 활용하지 않아 처치 곤란이 되는 것들이 있죠. 이 경우 오래도록 방치하거나, 중고 거래 등을 활용해 새 주인을 찾아주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프리사이클링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부터 환경을 생각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소비 방식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소비뿐만 아니라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답니다.

### 환경보호 첫걸음, 프리사이클링 실천방법

하나. 쇼핑 전, 구매 리스트 작성하기

먼저, 쇼핑 전에 구매해야 할 물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악한 후, 꼭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구매하면 프리사이클링 실천 끝!

둘. 이미 물건을 구매했다면?

오래전 구매한 물건, 이제는 사용할 일이 없다면? 중고거래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아 주세요. 내게 필요 없는 물건도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물건일 수 있으니까요!

### 중고거래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활용해요

소중한 자원의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원이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 순환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자원순환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자원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더불어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main.do>)는 폐기물 배출 및 운반, 처리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더 남다른데요! 만약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등록하면 그 물건이 필요한 기관 또는 시민이 검색을 통해 입찰하게 되는 구조이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보세요!

코로나19 등의 요인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요즘,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지갑과 환경을 동시에 지켜주세요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참조

#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운영회원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과 [회원규정]에 의거  
운영회원을 모집합니다.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

1. 운영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본 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규정]

제5조(운영회원)

운영회원은 전년도말 기준 총 회원의 1/10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제6조(운영회원 공개모집)

운영회원은 당연직 운영회원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출한다.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모집기간 2022년 5월 2일(월) ~ 31일(화)

모집인원 58명 (전년도말 기준 총 회원의 1/10) 선착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p.ekfem.or.kr>) 참조

 (사)목포환경운동연합

##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2. 03. 16. ~ 2022. 05. 10.)

전현호(이 화) | 강복수(자발적) | 박재범(정문조) | 김경애(자발적) | 이금희(임경숙) | 정경순(임성진)  
이정석(이현승) | 김은희(임성진) | 김병철(이현승) | 김수미(자발적)

### 목포환경운동연합과 강청은

### 포장재 간소화로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물비누	세탁용 (1g당) : 8원	고형비누	세탁용 (250g) : 1,500원
	주방용 (1g당) : 9원		주방용 (250g) : 2,500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를 가져 오시면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 판매시간 : 평일 (국경일 제외) 9:00 ~ 18:00   ▶ 문의 : (사무국) 010-8243-3169




자연을 대출하면  
미래는 파산합니다.

**김종국** 회원

※ 이미지 참고(한국언론진흥재단)



## 포마린

혼다V6 / 아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 해바라기치과

원장 이해송



T. 010-2654-2875, 061-279-288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산정동)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연은 허리가 휩니다.

**손현** 회원

※ 이미지 참고(환경부)

뽑는 것이  
싫는 것입니다



홍농염업사 대표 **최완수**

※ 이미지 참고(공익광고협의회)

먹는데 10분  
소화시키는데 100년?



1회용 용기 씌는 데는 100년 이상 걸립니다

**이현진** 회원

※ 이미지 참고(공익광고협의회)

[광고문의]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1-243-3169) : 위 광고는 소정의 광고비로 제작되었고 광고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처리됩니다.